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97
----------	------

발의연월일 : 2020. 10. 21.

발 의 자 : 이탄희 · 정춘숙 · 김승원
윤영찬 · 장혜영 · 홍정민
고민정 · 박찬대 · 박광온
이해식 · 강준현 · 황 희
진성준 · 정정순 · 오영환
최혜영 · 이용우 · 남인순
우원식 · 김상희 · 김영배
이용빈 · 윤영덕 · 홍기원
김성환 · 장경태 · 주철현
고용진 · 권인숙 · 황운하
이수진^배 · 강훈식 · 이소영
유기홍 · 민형배 · 김철민
강병원 · 김경만 · 유정주
의원(3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 비위를 저지른 학급담당교원(담임)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의 경징계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난 10년간 성 비위 교원 총 1,093명 중 총 524명(48%)이 교

단으로 복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중 학급담당교원은 학급만 바뀌어서 계속 담임 보직을 유지하고 있음.

경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경우, 2019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학생의 옷에 손을 넣거나, 엉덩이와 배,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 한 사실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부 인정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등’이라는 경징계를 받고, 2020년 7월부터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 채 재직 중임.

성 비위 사건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은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임. 성 비위 교사가 다시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의 담임으로 복귀하면, 또 다시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높은 상황임.

실제로 경기도의 한 사립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경우, 2016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여학생들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함. 그러나 2017년부터 4년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9년 또 다시 다른 반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비위를 저질러 결국 사건이 재발하고 나서야 해임된 바 있음.

이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66조의6 신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6(보직관리의 원칙) 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10년 간 해당 교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보직을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66조의6(보직관리의 원칙) ①</u></p> <p><u>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다.</u></p>
<p><u><신 설></u></p>	<p><u>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10년 간 해당 교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보직을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u></p>